류현진 KKK···이게 얼마 만이냐

첫 라이브피칭 합격점

1이닝 4타자 상대 23구 투구 포수 그란달 "원하는 곳 제구" 5선발 경쟁. 현지에서도 호평

'코리안 몬스터'로 돌아올 수 있을까.

LA 다저스 류현진(30)이 올해 첫 라이브 피칭 을 무사히 마치며 본격적인 선발 경쟁에 뛰어들었 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 없이 순조롭게 훈련 이 진행되고 있어 재기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류현진은 20일(한국시간) 다저스의 스프링캠프 가 열리는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캐 멀백랜치에서 라이브 피칭에 돌입했다. 그동안 불 펜피칭만 해오다 처음으로 라이브 피칭을 한 류현 진은 1이닝 동안 4타자를 상대하며 1안타 3탈삼진 을 기록했다. 투구수는 23개였다.

라이브 피칭은 투수가 마운드에 서서 타자를 타 석에 세워두고 상대하는 훈련을 일컫는다. 불펜피 칭 다음 단계로, 약 80%의 힘으로 다양한 공을 실 험한다. 실전 감각을 빠르게 찾아가기 위한 훈련 법이다. 타자 입장에서는 마운드에 선 투수의 공 을 상대하기 때문에 '라이브 배팅'이라 부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이 날 류현진이 5선발 경쟁 중인 스캇 카즈미어와 함께 다저스 투수 중에서는 가장 먼저 라이브 배 팅에 돌입한 사실을 전하면서 류현진의 인터뷰 를 실었다.

류현진은 인터뷰에서 "난 지난 2년간 1경기만 던졌다. 그래서 나에게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게 사실이다.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기 위해 나는 증명해야할 것들이 많다"고 현실을 인정한 뒤 "지 난해에는 내 자신에 대해 나조차도 의심을 했지만 오프시즌 동안 나의 능력과 몸 컨디션에 대해 자 신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류현진의 라이브 피칭을 받아준 포수 야스 마니 그란달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원하는 곳 에 공을 던지고 다양한 공을 던지는 것이 나아졌 다"면서 "공을 던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 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호평했다.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리치 힐, 마에다 켄타 까지 3선발을 확정했다. 4선발은 흘리오 유리아스 가 유력한 상황. 류현진은 카즈미어, 브랜든 매카 시 등 7~8명과 치열한 5선발 경쟁을 벌여야한다. 갈길이 멀지만 팀내에서 가장 먼저 라이브 피칭을 마쳤고, 그 과정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류현진은 앞으로 5일 간격으로 라이브 피칭을 이어갈 계획이다.

'블루도깨비'가 떴다

"축구에 '붉은악마'가 있다면, 야구엔 '블루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야

구대표팀을 응원하며 탄생했던 서포터스 '블루

도깨비'가 2017 WBC 1라운드(서울라운드)를

블루도깨비는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출정식을 개최하면서 WBC 대표팀 응원을 위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사회인야구 선수들과 연

예인야구팀인 '알바트로스'의 멤버들, 그리고

일반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정식에

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응원복 발표

와 함께 블루도깨비 명예응원단 위촉식 등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특별 이벤트가 펼쳐

졌다. 또한 서울시의 협조로 출정식 직후 사회인

고척돔서 WBC 응원 서포터스 출정식

도깨비'가 있다!"

앞두고 다시 뭉쳤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글렌데일(미 애리조나 주) | AP뉴시스

다"고 전한 뒤 "2006년 WBC 4강, 2009년 WB C 준우승, 그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 메달을 따면서 야구붐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번 WBC에 블루도깨비가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알 바트로스도 WBC 기간에 고척돔에서 열심히 응 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블루도깨비 창시자인 (사)한국사회인야구연 맹 정동우 사무국장은 "블루도깨비는 2006년 WBC 때 사회인야구를 하는 지인들과 호프집에 서 시작했는데, 한국이 4강까지 가면서 잠실야 구장 응원과 길거리 응원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야구는 축구처럼 A매치가 꾸준히 있는 게 아니어서 조직력은 아직 붉은악마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 서 WBC가 개최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응원전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블루도깨비는 한국이 2라운드에 진출하면 일본 원정응원단 파견과 함 께 팬들이 고척돔에서 전광판으로 경기를 보며 응원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 고척 ㅣ 이재국 기자

못지않게 야구대표팀에 큰 힘이 되도록 많은 관 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2017년 WBC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블루도깨비' 출정식이 2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이날 사회인야구팀과 친선경기를 펼친 '알바 트로스'는 2007년 창단 후 연예인야구팀 중에서 도 꾸준히 강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창단 멤버 이자 알바트로스 감독인 배우 조연우는 "연예인 들이라 다들 스케줄이 있고 바쁠 텐데 오늘 블루 도깨비 출정식에서 이렇게 많이들 와줘서 고맙

> 문화를 이해하는 패트릭 버고를 외국인선수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코

> 그동안 외인 스카우트는 영상자료나 성적 등 보 이는 기록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었다. 이는 한 계가 있었다. 예전과 달리 외국인선수의 성패는 K BO리그에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실력이 기본이지만 소속 팀원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인성도 중요해졌다. 그러나 해당 선수의 성품이나 사생활을 파악하는 건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구단은 외인 전담 코 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성공률을 높이 홍재현 기자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토중래' 이홍구

작년 106G 출장불구 큰경기서 제외 "내가 부족"…한승택과 안방마님 경쟁



KIA 이홍구

두고 엔트리에서 빠지는 아 픔을 맛봤다.

KIA 포수 이홍구(27)는 지난해 팀의 안방마님 중 가

장 많은 106경기(포수 출장

92경기)에 나섰다. 안방의 주 인으로 자리를 잡나 싶었지

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앞

2017년, 그는 '권토중래 (捲土重來)'를 노린다. 아픔을 맛본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20일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만 난 이홍구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내가 부족했던 것이었다. 올해 스프링캠프가 나에겐 매우 중요하

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홍구는 올해 후배 한승택(23)과 함께 안방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주전포수 자리를 두고 '2파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한승택은 지난해 와일드카 드 결정전에 이홍구 대신 엔트리에 합류해 $1\cdot 2$ 차 전 모두 선발출장하며 인상 깊은 활약을 보였다.

이홍구로선 강한 자극제가 될 법하다. 그는 "작 년엔 내가 못했던 것이다. 한 시즌을 완주했어도 막판에 타격감도 떨어졌고, 수비에서도 (한)승택 이가 훨씬 안정적이었다. 잘하는 선수가 가는 게 당연하다. 승택이가 잘했다. 아쉬움도 있지만, 내 가 부족했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단국대를 졸업하고 2013년 2라운드 전체 14순 위로 KIA에 입단한 그는 어느덧 5년차 시즌을 맞 는다. 캠프 경험도 늘면서 여유도 생겼다. 이홍구 는 "오키나와도 이제 익숙하다. 캠프를 거듭하면 서 조금 여유도 생긴 게 사실이다. 올해는 몸도 마 음도 가벼운 것 같다"며 웃었다.

의연한 이홍구는 이번 캠프의 중요성을 누구보 다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겨우내 몸을 잘 만들어 보 다 '슬림'해진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이날 경기 전 까지 연습경기 4경기 중 2경기에 선발출장, 1경기 에 교체출장해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펀 치력도 갖춘 이홍구가 8번 타순에서 역할을 해준 다면. 최형우의 가세로 막강해진 KIA 타선의 약 점은 최소화된다.

이홍구는 20일 열린 요코하마와 5번째 연습경 기에 8번 포수로 선발출장해 2타수 무안타 1삼진 을 기록했다. 그러나 2-1로 역전에 성공한 2회초 1사 2루서 요코하마의 좌완 선발 기대주 이시다 겐 타를 상대로 12구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기도 했다. 결과는 삼진이었지만, 끈질긴 파울 커트에서 달라 진 이홍구의 정확성과 집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KIA는 이날 3-9로 역전패하며 연습경기 5연패에 빠졌다. 5~7번 타순에 포진한 이범호와 김주형, 안치홍이 나란히 2안타씩을 기록했다.

오키나와(일본)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몸 풀기 끝낸 kt "2차 캠프는 전쟁"

미국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kt가 1차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2차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본격 적인 주전경쟁도 막을 올렸다.

kt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 서 진행한 1차 캠프를 마감하고 LA 샌 버나디노 로 건너갔다. 선수단은 이동 직후 별다른 휴식 없이 바로 다음날 샌마뉴엘스타디움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뒤 훈련에 돌입했다.

투산 캠프가 '몸 풀기' 성격이 짙었다면 2차 캠프는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이 다.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실전게임이 여럿 준비 돼있기 때문이다. kt는 22일 샌디에이고대학과 친선경기를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이르는 평가 전을 치른다. 1차 캠프에선 선수들이 대거 뛸 수 있는 청백전이 위주였던 반면, 2차 캠프에선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출전이 가능하다.

일정 역시 1차 캠프보다 촘촘해진다. kt는 투 산에서 사흘 훈련 후 하루 휴식으로 이어지는 로 테이션을 취했다. 훈련일을 줄이는 대신 집중도 를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LA에선 훈련 일수를 하루씩 추가했다. 나흘 내내 연습경기를 치러 선수들의 실전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겠 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역시 NC와 맞붙 는 6번의 평가전이다. kt는 창단 이후 미국에서 진행한 스프링캠프에서 NC와 평가전을 치르며 전력을 점검했다. 그러나 매번 상대전적에서 밀 리며 한 발 뒤진 상태로 한 해를 시작해야했다. 이번만큼은 대등한 경기를 펼쳐보겠다는 것이 kt의 속내다. 2차 캠프에 나선 kt 김진욱 감독 은 "전지훈련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쟁구도가 형 성되고 있다. 특히 백업선수들의 기량이 성장하 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며 "2차 캠프에선 여 러 평가전을 통해 서로 손발을 맞춰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외국인 농사, 코디네이터하기 나름이에요 로 삼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지난해 11월 메이저리그 베테랑 스카우트였던 마크 위드마이

야구팬을 비롯해 사회인야구선수, 연예인야구단을 망라해 응원단을 구성했다.

야구팀과 알바트로스의 친선경기도 열렸다. 팬

들은 무료로 받은 블루도깨비 공식 응원복을 입

블루도깨비 명예응원단장인 탤런트 이근희는

이날 출정식에서 "WBC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

에서 개최되는데 1차 목표인 1라운드를 통과해

야하지 않겠나. 블루도깨비는 대한민국 국민이

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구의 붉은악마

고 관중석에서 응원전을 펼쳤다.

영상자료・성적 등 보이는 기록뿐 아니라 외인 스카우트·재계약 등 중간자 역할도

삼성이 2017시즌을 앞두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지난해 실패한 외국인농사를 교훈 삼아 외인 영입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 지난해 11월 총 액 105만 달러에 앤서니 레나도를 영입했고, 외국 인타자로 다린 러프를 데려오는데 110만 달러를 투자했다. 지난 시즌만 해도 삼성은 교체한 2명을 포함해 외인 5명에게 쓴 금액이 310만 달러에 불



롯데 사도스키

과했다. 아롬 발디리스를 데 려오는데 쓴 95만 달러가 최 대였다. 그러나 올해는 투자 금 자체가 달라졌다. 물론 금 액이 그 선수를 평가하는 절 대기준은 아니지만 외국인투 수들의 부진으로 인해 9위라 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 었던 만큼 좋은 용병을 데려

오기 위해 통 큰 지갑을 여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뿐만 아니다. 삼성은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 NC는 2016시즌 시범경기부터 한국과 미국, 양쪽

어를 코디네이터로 영입하면서 외국인선수 영입 에 신중을 기했다. 롯데도 2015년 선수생활을 했 던 라이언 사도스키를 해외 스카우트 코치로 임명 해 외인들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겼다. 실제 사도스키 리포팅으로 뽑은 외인이 짐 아두치나 조 쉬 린드블럼 등이었다. LG도 비록 선수로서는 성 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잭 한나한을 현지 코디네이 터로 섭외해 외인 계약을 주도하게 했다. 올해가 밝기 전 루이스 히메네스, 헨리 소사, 데이비드 허 프 3명의 외국인선수와 재계약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중간자 역할을 한 그의 공이 컸다.

디네이터로 임명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